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사목회장	명광식 니콜라오 (510) 332-8782 email : myoungkwangsik@gmail.com	화, 금 휴무	선종봉사회장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연중 제 16주일/농민주일 7월 19일 미사 전례 >

[입 당 송] 시편 54(53),6.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대영광송>

[제 1독서] 지혜 12, 13. 16-19

[화 답 송] 시편 86(85),5-6.9-10. 15-16ㄱ(◎ 5ㄱ)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 2독서] 로마 8,26-27

[복음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 음] 마태 13,24-43

[영성체송]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전례력으로 순교자 성월도 아닌 때에 순교를 떠올리게 하는 농민 주일이다. 종교가 자유롭게 허락되지 않던 시절에 배교를 강요당하고 믿음을 버리라 할 때, 죽음을 택하여 오히려 하느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며 기뻐하신 분들이 바로 이 땅의 신앙의 선조들이다.

사지가 찢겨나가거나, 망나니에게 목이 잘리는 능지처참, 군문효수를 당하던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나는 그런 순교자들을 지금도 내 주변에서 자주 만나며 살고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박해 상황과 다름없는 생계의 위기와 극한 어려움을 안고도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땅을 일구며 사는 농부들이다.

지금은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일도, 그래서 순교할 일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꼭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도 땅이 아파하는 모습을 직접 만지고 느끼며 그 땅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농부들이야말로 순교자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실제 박해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도외시 당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때깔 좋고 균일한 크기의 시스템적인 생산물만을 좋은 것으로 곡해하는 이 시대 대다수 소비자의 생각 자체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이 땅을 일구며 사는 농부들에게는 박해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눈앞에 떨어지는 결실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것을 꾸준히 끌고 가는 사람들, 자신들이 지켜온 땅과 신념을 하루에도 수백 번 포기할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

사회가 박해의 상황과 뭐가 다를 것인가. 땅이 척박해 서라기보다 농사지을 환경이 척박한 박해시대의 순교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농부들에게서 느끼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순교를 하느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 농민들 또한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만나는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영광은 아닐지라도, 기쁘게 살아가는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밝은 빛이야말로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 갖는 영광을 충분히 보여주기도 남으며, 늘 눈에 보이는 생산적인 결과만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다.

혹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일부러 순교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미 박해를 넘어 순교의 삶을 사는 농민들의 삶에 동참해봄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농’의 물품을 아낌없이 애용하는 소비자와 활동가들은 이미 거기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삶이든 힘들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이 시대의 박해 속에서, 신념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매일 승리하는 농민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그들과 함께 하려는 소비자와 활동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느님!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 드리는 영광을 마음껏 받으소서!

권오준 B.루치아노 신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7/19(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7/21(화)	연	고야고보(명재)	임클라라(은석)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연	김아네스(순이)	요아킴/안나회/실버반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김마리아(양월)	이요안나(기자)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아네스		생	정다니엘/필립	정안드레아(일양)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허실비아	허세실리아(홍숙)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7/22(수)	생	주마리아(정희)	이에스터
	연	심아브라함(재구)	가족	7/23(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황마르코(문환)	가족		연	정벤자민(대업) 9주기	정데레사(혜경)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연	김마리아(양월)	이요안나(기자)
	연	박안드레아(추웅)	가족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명국)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7/25(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명국)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아(정임)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달/스텔라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조안드레아(기상)	조바실리오(진행)		연	김아네스(순이)	가족
	연	김중화/이열자	정데레사(혜경)		연	김요셉(한규) 기일	김요한(형덕)/스테파노
	생	이요한(규호)	김엘리사벳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다니엘(7/21) : 최대연, 천종욱

* 마리아 막달레나(7/22) : 이선희

* 크리스티나(7/24) : 전옥분, 김관숙, 임은정, 신기수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 837
- < 교무금 > \$3,350
최용일(1-7) 이범준(7) 이영기(7-10) 천종욱(7) 조승훈(1-12)
김영희(8-9) 이덕용(7) 이선희(6-7)
- < 성소후원금 > \$ 120
이범준(7-12) 이덕용(7) 이선희(4-7)
- < Bishop's Appeal > \$ 80
이범준(7-12) 이덕용(7)
- < 감사헌금 > 김관용
- < 빈첸시오 노숙자 돕기 후원금 >
요아킴/안나회, 실버반
- * 선종하신 김형찬 요아킴 형제님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2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2020 비전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니다.

◆◆◆◆◆◆◆◆◆◆ 오클랜드 교구 내 한인성당 안내 ◆◆◆◆◆◆◆◆◆◆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주임신부 : Fr. John Kim 김종광 사도요한

주일미사 : 오전 9시(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사무실 전화 : 925-600-0177 www.tvkcc.org

<p>광고문의 사무실 510-553-9434</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 바디 Work</p> <p>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p> <p>자동차대출, 체크킹, 적금 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408) 260-0900</p>
<p>송 이 웅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213 Oakland</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데비 양(데보라) 보험 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G51968</p>	<p>냉장고,세탁기,Oven,Dishwasher TV/Computer Repair (510)896-8348 LVM (510)304-7956 Cell 조승구 요셉</p>	 <p>+성지순례 전문+ ANGEL Tour &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대표: 이 경혜 안젤라 Tel. 213-999-6294 e-mail: angeltourtravel@gmail.com www.angeltourtravel.com</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